

“서울 도심이 공연장으로!” 서울광장, 거리예술 메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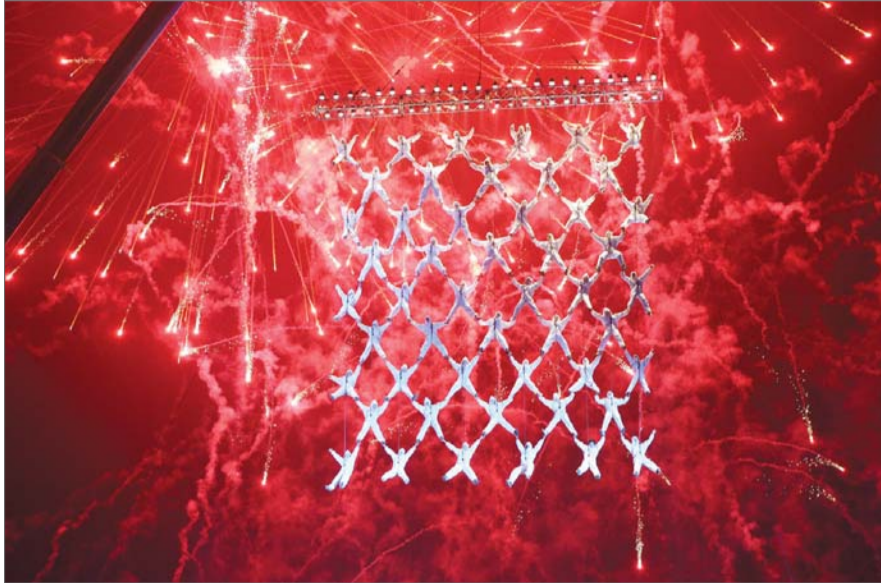
프랑스·스페인 등 10개국 참가
시민예술가 등 공연 구성 협력
트램펄린·서커스 등 볼거리 다양

서울 도심의 광장과 거리가 대형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골 한옥 마을 등 시내 곳곳에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에는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영국, 벨기에 등 10개국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46편의 거리예술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 주제는 '따로, 또 같이'다. 국내외 참가팀과 시민예술가, 공동체 그룹, 일반시민이 협력해 공연을 구성하고, 각 공연이 하나의 줄기로 통일되는 유니버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 프로그램 '휴먼 넷'.

[서울시

스 형식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김종석 예술감독은 “각자의 개성과 다

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축제 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예술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연대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공식 초청작 33편(해외 12편, 국내 21편), 자유참가작 13편 ▲시민예술공작단 ▲자원활동가가 만드는 '길동이랑 놀자'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 국제포럼 등이 준비됐다.

관람객들은 서울거리예술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공연을 선택해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오는 4~5일 서울광장에서는 200여명의 시민과 예술가들의 대형 공중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00여명의 시민이 만드는 '휴먼 라이트', 스페인 예술단체 '라 푸라텔 하우스'의 '휴먼 넷', 국내 예술단체 '창작중심 단디'의 '빛의 기억'이 유니버

서울도서관 앞에서는 거대한 트램펄린

으로 다이빙하는 이색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무용과 서커스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차가 사라진 세종대로 왕복 11차선 도로가 공연장으로 바뀐다.

대형 종이 상자로 도미노 만들기, 아스팔트에 분필로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구연동화 버스, 줄타기·저글링과 같은 서커스 체험 등이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사거리에서 대한문 앞까지 세종대로 500m 구간에 차량이 통제된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매년 시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올해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 연인, 친구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붉게 물든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붉게 물든 칠면초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쉬운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 재탄생

서울 지하철 2·4·5호선이 모여 있어 복잡했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환승 노선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지하철역'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을 도입,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적용한 지하철역으로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해 지하철역에 적용할 4개 테마의 디자인을 선정했다.

4개 테마는 ▲이용자 중심정보제공 ▲이용객 간 배려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질서 유지·안전 공지 ▲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편의·휴식 공간 제공 ▲지하철 내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에티켓 캠페인이다.

시는 지하철 이용 승객이 멀리서도 환승구간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환승구간 천정과 벽면, 바닥에 각 노선 색을 활용해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다. 출구 근처 바닥에는 각 출입구까지 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 놓고 예상 소요 시간을 표기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승·하차하는 시민들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색 선으로 대기 라인을 그렸다.

이용객들이 물리는 칸에는 스크린 도어에 '여기는 사람이 물리는 칸입니다'라



는 문구를 적어 넣어 시민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환승과 열차 대기 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한 '워크·힐링존'을 만들었다. 광고판과 손잡이 등 역 곳곳에는 지하철 에티켓을 소개하는 캠페인 '에티켓과 모르쥬' 만화광고를 실었다.

서울시가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적용 전후 지하철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역사에서 해매는 시간이 6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크린 도어 앞에서 대기하는 시민 중 올바른 위치에서 기다린 사람 수도 평균 70% 이상 늘어났다.

김선수서울시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지하철역 사례처럼 일상에서 누구나 느끼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을 개발해 '디자인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다

2019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
법정 근로시간 적용면 월 212만원

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노동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시는 그동안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

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구조하에,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고육비 반영비율은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 원 증가했다. 증가 소득의 50%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져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식변화를 보면, 생활임금은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

인 변화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인식이 나아졌다.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생활임금 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은 ±4.96%이다.

강병호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상상캠퍼스서 '마을공동체 한마당' 열린다

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만나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천인정책장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활동선언식 ▲마을체험장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사례, 마을구성원들의 변화된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동기, 위기극복 등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다. 상호평가를 통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천인정책장터'는 시군별로 개최된 지역집담회와 광역단위 금요집담회에서 도출된 제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 판매

하는 부스다. 마을과 경제, 공간, 돌봄, 미디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활동선언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천인정책장터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대표 정책을 소개하고, 마을상상댄스를 함께 추며 마을활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동체 정책부스 및 영상 상영전, 마을체험프로그램과 마을놀이, 마을퀴즈 골든벨, 버스킹,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와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다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불꽃축제는 지하철 타고”

서울시, 6일 여의도 일대 교통 통제

서울시는 6일 '2018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의도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지하철 운영을 늘린다 1일 밝혔다. /김현정 기자